

건강을 지키는 현장

농민의 건강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전북 농협가족 한마당 큰잔치” 마련한

전라북도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전북부지사



매년 전북지역 내 농민들에게, 건강검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주고있는 전라북도 농업협동조합이 '91. 전북 농협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지난 10월 20일에 가졌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북 농협은 이야기한다.

참가한 농민들의 구리빛 얼굴에서 잠시나마 어두운 그늘을 벗겨 주고 웃음으로 가득차게 해주었던 이번 한마당 큰잔치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91. 전북 한마당 큰잔치의 현장으로

서늘한 늦가을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고속도로변에 늘어진 황금빛 물결은 고개 숙여 수확의 계절을 말해 주는데, 오늘따라 마음의 울적한건 또 지나가 버리는 한해의 아쉬움이 일찍 찾아오는 까닭일까.

애항의 도시 전주는 이렇게 아쉬움부터 주었지만 기자에게는 또다른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결의를 위해 '91
전북농협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마련했다는
소구영 전북농협도지회장



· 자유로움 속의 단합된 모습

전라북도내 농협가족들이 한데 모여 한마당 큰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주공설운동장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구리빛 얼굴에 저마다 자기 고장을 대표하는 운동복을 형형색색으로 차려 입고 입장식을 하고 있는 광경은, 자유로움속에서 흠어지지 않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 "'91 전북 농협가족 한마당 큰잔치"라고 쓰여진 대형 애드벌룬 아래 신나게 펼쳐지는 응원엔 평소 이들의 응집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결의 위해

무척 소박해 보이는 소구영(蘇久永) 전북농협도지회장은 이번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게 된 의의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농협 3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에도 농민들의 노력으로 대풍작을 이룬 자축의 의미가 있고 전북도내 170여개 농협사무소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지요.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처해 있는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새로운 결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1964년 농협에 입사한 이래 25년간을 농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에 투신 봉사하면서 많은 난관을 이겨왔지만 오늘날 농협이 성공적인 발전을 가져 온 것은 선배들의 희생과 정열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으며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농민들의 아낌 없는 협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민들의 생활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소신도 피력해 주었다.

◦ 우리는 모두 한마음

열기로 가득찬 응원단 한 가운데 자리를 하고 만난 김창인(52세)씨는 기자에게 『기쁩니다. 아직 이런 큰잔치가 없었는데 처음 열게 되서 참석하니 신도나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손에 잠시잠깐 풍선도 들고 깃발도 들며 우리마을 우리고장 사람들을 응원하니 더더욱 즐겁고...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라며 열심히 응원한다.

◦ 농민들 보건·의식 개선에도 주력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빙永錫(45세) 공제과장은 점심식사를 같이한 자리에서 기자에게 그동안 전북농협도지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금년에도 고혈압검사를 비롯하여 여러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검사종목을 늘려서 실시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죠.』

건강검사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부족해서 일선검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았지만 건협전북지부와 협력해서, 건강검사는 물론 보건계몽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니 건강검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땀벌에서 사는 농민들에게 건강은 필수적이죠. 다만 어려운 환경 탓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없었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자위해 버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 전북농협도지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 건강검사에 더욱 주력하여 잘사는 농촌, 건강한 농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라며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
건강검사 정착에
더더욱 주력하겠다고
전북농협은
이야기 한다.



한편 건협전북지부 이종남사업과장은,
『저희 전북지부에서는 도내 농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북농협도지회와 협동사업으로 정기순회검사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건강한 농민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해주었다.